



박일 알렉산델 신부 | 반포1동성당 주임

|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겐네사렛 호수에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호숫가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군중이 서로 잘 듣기 위해 가까이하니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시몬의 배에 올라타 물에서 조금 나가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시몬은 이미 장모님을 고치는 기적을 보았던 터이고, 예수님을 집에 모셨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의 권위와 초자연적인 권능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 매력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차, 시몬은 이 예언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 도움을 청하니 뭔가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깨가 으쓱하는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 있는 말씀은 사람을 인간적으로 사로잡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배가 물에서 조금 떨어져 나아가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치라고 하십니다. 당시 그물의 길이는 400~500m로 세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 그물을 치려면 가장 깊은 데에 쳐야 했고, 운영하려면 적어도 4명의 어부는 달려 들어야 하는 규모였습니다. 고기잡이 경험이 많은 어부의 판단에 의하면, 지금 그물을 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고기잡이에 적합한 밤을 꼬박 새우며 허탕을 쳤는데, 낮

에 무엇을 잡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지친 몸들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서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니고 말씀하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완수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대답합니다.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루카 5,5) 스승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먼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서는 부인할 수 없는 당신의 현존과 사랑의 표지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믿음을 지탱시켜 주십니다. 성모님께서도, 아브라함 선조도 그러하셨듯이,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로마 4,18) 믿고 내어 맡겨야 합니다.

기적적인 고기잡이 작업의 결말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분명히 느끼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크게 자각하게 됩니다. 이런 현존 체험은 그를 베드로로 자리 잡게 합니다. 루카 복음사가도 이제 ‘시몬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시몬 베드로와 함께 사람 낚는 어부로 불림을 받습니다.

2월 1일 새 신부님들, 2월 2일 봉헌생활을 (다시)시작하신 수도자님들, 이제껏 그래 오셨듯이 굳건한 믿음과 온전한 내어 맡김에 항구하시어 기쁨이 가득한 사목 생활, 수도 생활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악동성당(선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12길 24-6

대흥동성당 무악동성당(선교) 봉천3동성당(선교)



무악동에서의 빈민 사목의 시작은 1989년 ‘복음자리’ 출신인 활동가 김영준씨 가족의 이사로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 9월 이나시오 영성을 따르는 평신도 모임(Christian Life Community)에서 무악동에 초등학생 방과 후 교육을 위한 ‘한누리 공부방’을 열었고 이어 1996년 10월 무악마을이라 이름을 짓고 단지에 입주했습니다. 교구 사목 방침에 따라 무악동에서 일주일에 한번 가족 미사가 있었고, 선교 본당 설립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99년 2월 종로구 행촌동 다가구 이층집에서 전례와 실내 행사를 해오다 2001년 9월 서울대학교가 무악동 선교 본당의 전례를 위해 한옥을 구매하여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홍보국** 차장